

미미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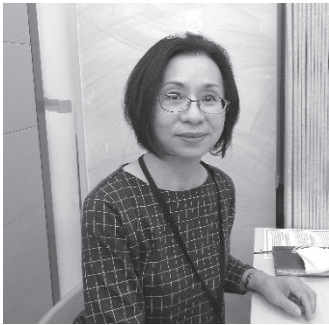
주소 : 오츠시 니오노하마 1-1-20 피아자오미 2F
Tel : 077-523-5646
E-mail : mimitaro@s-i-a.or.jp
URL : https://www.s-i-a.or.jp/ko
f : https://www.facebook.com/siabiwako



한글판/ハングル ☆138 호 2021 년 1 월

문화의 차이에서 느끼는 것들

미미타로는 통역과 일본어 강사를 하고 계신 로케츠 님(오미하치만시)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일본인과 결혼해서 오미하치만시에 산 지 22 년이 됩니다. 일본어는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공부했고 일본에서 기업 통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일을 계속했지만 아이가 유치원생이었을 때 아이를 데리고 중국에 3년간 부임했었습니다. 그것이 아이 언어 때문에 고생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귀국 후 아이는 일본어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저는 회사를 그만 두고 아이와 함께 한달간 학교를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학교 통역과 일본어를 지도하게 되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상황을 접해왔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을 전하는 것은 언어를 통역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반드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운동회에서 「우리 아이는 달리기를 잘하는데 같은 수준의 아이들과 경쟁을 시키는 바람에 입상 못했다」라고 불만을 토로하는 중국인 어머니를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표면적인 언어상의 통역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중국에서 운동회는 경쟁이지만 일본에서는 운동을 함께 즐기는 이벤트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으면 공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표현 방법에 있어서도 많이 다릅니다. 중국인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의사표현을 하지만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표현이 많은 일본에서는 개운치 않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문화가 있고 가치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은 할 수 있고 자신도 타인이 이해해 준다면 기쁘기 그지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문화를 배우는 것은 다른 문화를 가진 이들과 소통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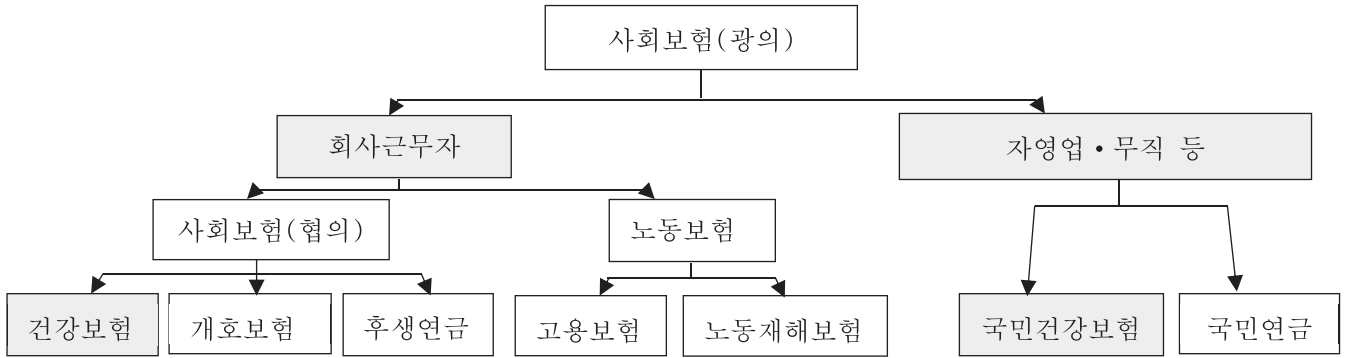
문화의 차이는 특히 아이들이 어른 이상으로 크게 느끼는 법입니다. 외국인의 아이들은 우선 언어의 장벽이 의사소통의 장애가 되지만 언어의 장벽이 없어진 다음에도 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인해 자신의 생각을 다 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에서는 중국문화, 학교에서는 일본문화라는 2 개의 문화를 왕래해야 하는 환경 속에 있는 아이들은 부모나 일본인 친구에게 털어 놓을 수 없는 고민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같은 처지에 있는 저는 일본인 친구와의 대응방법 등의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는 딱 알맞은 존재이며 저 자신도 그런 아이들을 친척 조카처럼 가깝게 느끼곤 합니다.

지금 시가현에도 많은 외국인이 생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중국인은 각자 혼자서 애쓰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서로의 연결고리를 소중히 해서 뭔가 곤란한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상담창구나 누군가와 의논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고민을 털어 놓는다는 것은 커다란 용기가 필요합니다. 혼자서 고민하다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기도 합니다. 겉은 위에서 보면 동그랑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다른 모습이 보이고 예쁜 색채나 무늬를 즐길 수 있지요. 이처럼 시점을 바꾸면 다른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가끔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쐬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새로운 뭔가에 접하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다양한 가치관이나 새로운 정보 속에서 본인도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젊었을 때는 내 생각만 하고 지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나이 탓도 있겠지만 생각도 조금씩 변해서 사람과의 만남이 무엇보다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여기 이곳에서 함께 살고 있는 우리들이 서로 도우면서 즐거운 시간을 같이 할 수 있다면 하는 생각으로 작년에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과 「시가현 귀국자 화교화인연합회」를 창립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모두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위해 「지금」을 쌓아가려고 합니다.



일본의 회사에 취직해서 일하기 시작하면 급료에서 사회보험료가 공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회보험”이란 무엇일까요? 일본에는 다양한 사회보험제도가 있으며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가입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번에는 이들 중에서 건강보험에 대해 회사근무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다른 점을 알아보시다.

● 회사에서 일하고 급료를 받는 사람

회사를 통해서 사회보험에 가입합니다. 보험료는 급료에서 공제되지만 보험료의 반을 회사가 부담합니다. 또한 부양가족도 함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보험료가 들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과 연금은 세트로 가입합니다.

● 자영업·무직 등 회사근무자가 아닌 사람(상기 이외의 사람)

개인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 보험료는 본인이 거주지 관청에 납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료는 가족을 포함해서 전액 자기 부담입니다. 연금도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합니다.

● 병원비가 3 할인 것은 어느 쪽도 같습니다. 또한 의료비가 고액일 경우의 급부, 출산이나 사망했을 때의 급부도 같습니다. 회사의 사회보험에는 질병이나 출산으로 회사를 쉬었을 때 급료의 일부를 보장하는 급부가 있습니다만 국민건강보험에는 없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가입과 탈퇴의 수속에 대해

● 회사에 취직했을 때

사회보험에 가입할 때는 회사가 수속을 해 줍니다만 지금까지 가입해 있었던 국민건강보험의 탈퇴수속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보험료가 이중으로 청구되는 일이 없도록 거주지 관청에서 탈퇴 수속을 해 주십시오.

● 회사를 퇴직했을 때

퇴직하여 사회보험의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는 보험증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즉시 회사에 반납합니다. 그리고 관청에 가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을 받는 수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회보험에 임의로 계속 가입하거나, 가족의 부양에 들어가는 선택지도 있으므로 확인해 주십시오.

도서관을 이용해서 새로운 발견을 하자!



시가현에는 19 개의 행정구역에서 모두 51 의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주지의 공립도서관의 대출권은 주민이나 통근 통학하고 있는 사람은 무료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읽고 싶은 책이 거주지의 도서관에 없을 경우에는 신청하면 시가현립 도서관을 비롯한 다른 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 읽고 싶은 책이 있다면 도서관 직원에게 상담합시다!



시가현립도서관



외국어책이나 잡지도 있습니다!

〒520-2122 오즈시 세타미나미
오오가야 1740-1 TEL : (077)548-9691

교통 : JR 세타역에서 테산버스 혹은
오미버스 「시가의대」 행
승차 (약 10 분) 「문화존」 하차,
도보 5 분

개관시간

○수~금 10 시~18 시

○토·일·공휴/휴일 10 시~17 시

휴관일

○월·화 (공휴일은 개관, 그 주의
수요일 휴관)

○공휴일의 다음날 (토·일은 개관)

○연말연시/특별정리기간



◇대출권을 만들자!

책을 빌리려면 대출권이 필요합니다. 2 층에 있는
참고자료실에서 도서 대출 등록표에 기입하고 주소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운전면허증, 보험증, 학생증
등)과 함께 카운터에 내고 대출권을 만듭니다.

◇책을 빌리자!

책이나 자료를 한사람당 10 권까지 3 주일 동안 빌릴 수
있습니다. 1 층의 아동실에는 어린이를 위한 책이 있고
외국어 그림책도 있습니다. 2 층의 일반자료실에는
실용서적부터 전문서적까지 약 15 만권의 책이 있으며
어학 학습 자료 등도 있습니다. 또한 참고자료실에는
다양한 언어의 외국도서가 약 8 천권 있으며 희망하는
책을 1 층 카운터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



◇책을 반납할 때

도서관이 열려 있는 시간에는 일반·참고자료실·아동실의 각 카운터에 반납합니다. 도서관이 닫혀
있는 시간에는 현관 왼쪽에 있는 북포스트, 혹은 거주지의 도서관에 반납하면 됩니다.

*단, 오즈시립·쿠사츠시립 도서관에는 반납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택에서 Web 사이트를 통해 책이나 잡지 등의 검색·예약을 할 수
있으며 소장하지 않은 책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어
도서관에 올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우송으로 대출도 하고 있습니다.
생활상의 의문이나 알아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도서관 직원이
상담해 드립니다. 현립 도서관의 책도 다른 공립도서관을 통해
빌릴 수 있으므로 마음껏 이용해서 배움과 즐거움을 만끽하도록
합시다!



미미타로 정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미미타로



◇ 세츠분사이 2월 2일



세츠분은 음력으로 선달
그믐을 가리키며 이 날에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신춘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콩을 뿌리면서 귀신을 쫓는
행사가 각지에서 열립니다. 올해 세츠분은
124년만에 2월 2일.(확인하고 가십시오)

* 타가다이샤 (이누가미군 타가초 타가 604)

Tel 0749-48-1101

* 미나구치진자 (코가시미나구치쵸미야노마에 3-14)

Tel 0748-62-0231

* 젠스이지절 (코난시 이와네 3518)

Tel 0748-72-3730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기침 에티켓과 손 씻기!~

감기 증상이나 열이 있을 경우 우선 근처의
병원에 전화해서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 해외에 갈 때는 주의하십시오.

● 외국에서 입국할 때 검역의 강화나 입국 ·
비자발급의 제한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출국하기
전의 PCR 검사나 도항하는 국가의 입국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 PCR 음성 증명 발행 의료기관에 대해

[https://www.meti.go.jp/policy/investment/teco
t/pdf/tourokubo.pdf](https://www.meti.go.jp/policy/investment/teco_t/pdf/tourokubo.pdf) (일본어) (경산성 HP)

● 입국 거부 대상 국가·지역에서 일본에 재입국할
때는 체재국·지역에서 출국하기 전 72 시간
이내에 코로나 감염증에 관한 검사를 받고
의료기관의 음성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https://www.mofa.go.jp/mofaj/ca/fna/page4_005
130.html](https://www.mofa.go.jp/mofaj/ca/fna/page4_005130.html) (외무성 HP)

● 음성 증명 포맷에 대해

[https://www.mofa.go.jp/mofaj/ca/fna/page25_00
1994.html](https://www.mofa.go.jp/mofaj/ca/fna/page25_001994.html) (워드 포맷)

미미타로 뉴스

◆ 확정신고를 잊지 맙시다!

개인사업주나 급여를 2곳 이상에서 받고 있는
사람, 다액의 의료비를 지불하는 등 공제액에
정정이나 원천징수가 안된 수입이 있는 경우는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국외 거주 친족에 관한
부양공제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친족 관계 서류」 및 「송금 관계 서류」를
확정신고서에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마이 넘버 카드로도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간 : 2월 16일 ~ 3월 15일

문의 각 세무서

◆ 자동차의 명의·주소 변경

4월 1일 시점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에
대해서 5월 상순경에 자동차세 지불 통지서가
차검증에 기재된 주소로 우송됩니다. 명의
변경이나 주소 변경의 경우는 신속하게 수속을
합시다!

경자동차 : 경자동차 검사협회 Tel 050-3816-1843

보통차 : 주소를 관할하는 육운 지국 (시가 넘버는
시가 육운 지국 Tel 050-5540-2064)

◆ DV, 혼자서 고민하지 맙시다!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의 폭력에 대해 전문
상담원이 같이 생각하는 상담창구가 있습니다.
외국어 상담은 SNS 나 메일로 가능합니다.

문의 DV 상담플러스

SNS : <https://form.soudanplus.jp/ko>

E-mail : <https://form.soudanplus.jp/mail>

Tel : 0120-279-889 (일본어)



시가 외국인 상담 센터 (시가현 국제협회 내)

고민이나 알고 싶은 점 등 무엇이든지 전화해
주십시오. 다양한 언어로 여러분을 도와드립니다.
무료법률 상담도 있습니다.

Tel: 077-523-5646 Fax: 077-510-0601

E-mail: mimitaro@s-i-a.or.jp

미미타로 다음 호는 4월에 발행 예정 입니다.